

전주매일

금연상담전화 | 1833-9030
전라북도 익산시 무왕로 895(신동동 344-2) 한광대학교병원 5층 1호
TEL: 063) 859-2400 ~ 2410 FAX: 063) 859-241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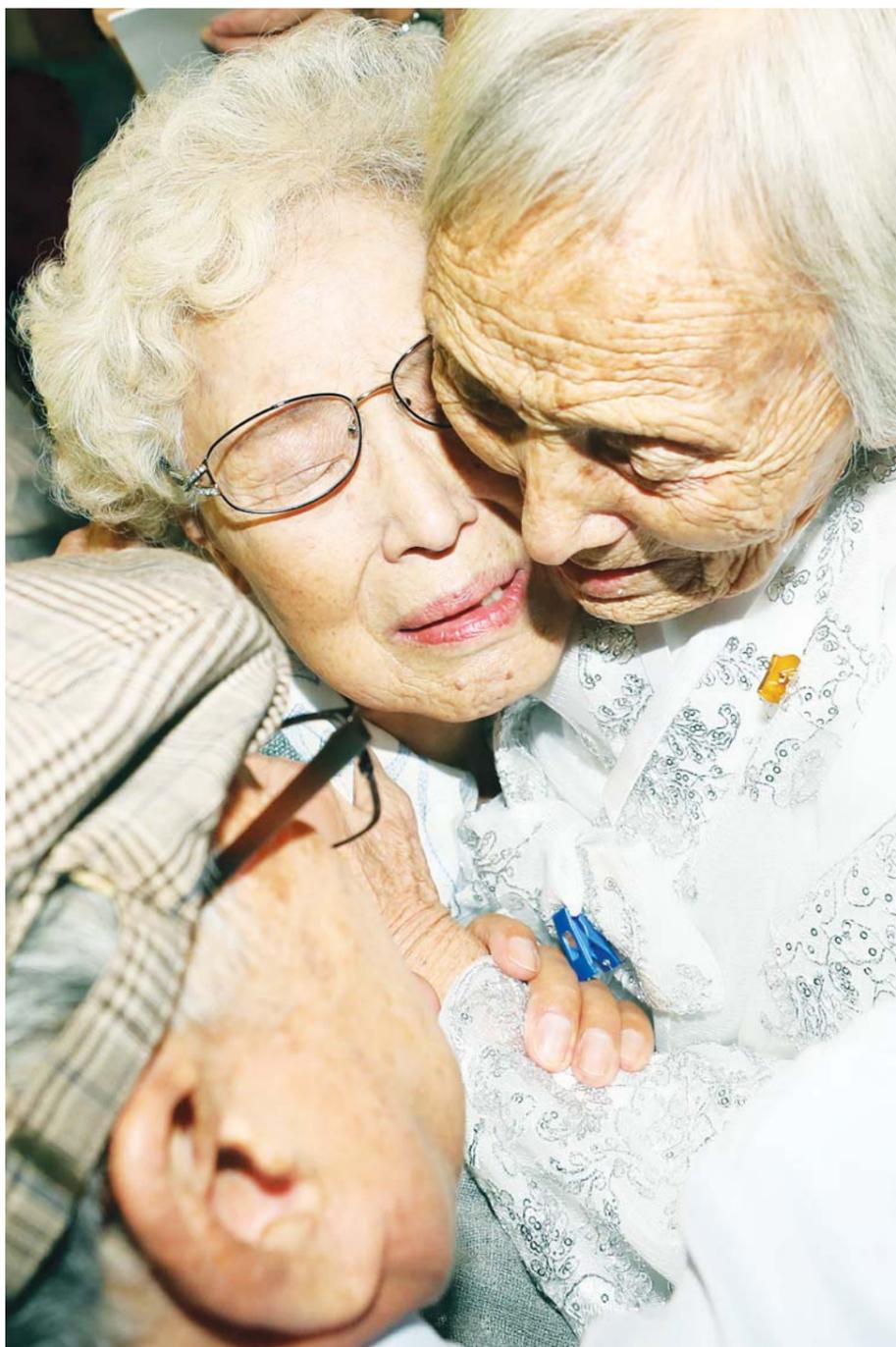
비수술적 척추관절 통증치료 전문
세인 신경외과 의원
원장 박경문 ☎ (063)220-6600
전주시 완산구 효자 천변 2길 6번지

2018년 8월 21일 화요일 (음 7월 11일) 제2113호

www.jjmaeil.com

대표전화 (063)288-9700

“언니 잘 있었어?”... 남북 이산가족 상봉



제21차 이산가족 상봉행사 1회차 첫날인 20일 금강산호텔에서 열린 단체상봉에서 남측의 조혜도(86·가운데)가 북측의 언니 조순도씨(89)를 만나 부둥켜 안고 눈물을 흘리고 있다. 2년 10개월 만에 열리는 이산가족 상봉은 20일부터 26일까지 금강산에서 진행된다. <관련기사 3면>

천만그루 가든시티 본격화

전주시, 울 하반기 백제대로 등에 가로숲 조성 온고율로 따죽지·주변 가로녹화사업 등 추진

전주시가 백제대로와 온고율로 등 주요대로변에 가로숲을 조성하는 것을 시작으로 천만그루 가든시티 조성을 본격화한다. <관련기사 4면·16면>
천만그루 가든시티 조성은 민선7기 김승수 전주시장의 첫 결재사업으로 행정과 시민, 기업·민간단체 등이 함께 단 한평의 땅이라도 나무를 최우선적으로 심어 도시 전체를 정원으로 만들어 미세먼지 격정으로부터 자유롭고 시원한 도시로 만들겠다는 것이 핵심이다.
시는 이 프로젝트의 일환으로 울 하반기에 온고율로와 백제대로 등 주요대로변에 가로숲을 조성할 계획이라고 20일 밝혔다.

소요되는 예산은 총 15억원으로, 시는 △주요도로 가로숲 조성사업 △온고율로 따죽지 조성사업 △온고율로 주변 가로녹화 사업 등 3개 사업으로 나눠 추진할 예정이다.
먼저, 시는 백제대로 등 전주시 주요 도로를 대상으로 가로수가 고사되어 비어 있는 곳과 수형이 불량한 곳, 가로수 추가 식재가 가능한 장소를 찾아 나무를 심을 계획이다. 또, 주요교차로의 교통섬 등을 녹음이 울창하고 시원한 공간으로 재정비키로 했다.
또한, 전주의 주요 관문인 전주IC를 거쳐 혁신도시와 만성지구, 서신동, 구도심 등으로 통하는 주요 도로인 온고율로(서신동 통일광장~서곡광장~덕진경찰서~화개네거리~전주월

드립경기장~반월동 초춘교차로)의 도로경관을 개선하는 온고율로 따죽지 조성사업도 한다.
시는 시설계획을 거친 후 오는 10월부터 연말까지 가로수 조성을 위한 3개 사업을 모두 완료할 예정이다.
동시에, 환경단체와 도시계획 전문가, 조경전문가, 지역 화훼인, LH 등 관련 전문가와 공공기관 관계자들의 의견을 수렴해 신규사업과 중점사업을 발굴하고 이번 프로젝트를 범시민 참여운동으로 확산시킨다는 구상이다.
김중엽 시 생태도시국장은 “1000만 그루 나무심기는 단순한 도심녹화 운동이 아닌 우리의 현재와 미래에 대한 고민에서 시작된 시민참여 프로젝트다”며 “행정과 시민이 힘을 모으면 대한민국에서 가장 미세먼지가 심각하고 더운 지역인 전주를 맑은 공기 도시, 가든시티로 만들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송효철 기자

文대통령 “이산 상봉 확대 남북 인도적 사업의 최우선”

문재인 대통령은 2년10개월 만에 남북 이산가족 상봉이 이뤄진 20일 “이산가족 상봉을 더욱 확대하고 속도를 내는 것은 남과 북이 해야 하는 인도적 사업 중에서도 최우선 사항”이라며 이산가족 상봉의 정례화 필요성을 언급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후 청와대에서 주재한 수석 비서관·보좌관 회의의 모두발언에서 “헤어진 가족의 생사조차 알지 못한 채 천추의 한을 안고 생을 마감하신 것은 남과 북의 정부 모두에게 부끄러운 일”이라며 이렇게 밝혔다.
그러면서 “남과 북은 더 단대하게 이산가족 문제 해결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며 “정기적인 상봉행사는 물론 전면적인 생사확인, 화상상봉, 상시상봉 등 상봉 확대방안을 실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특히 오래 전에 남북 합의로 건설된 금강산 이산가족 면회소를 건설취지 대로 상시 운영하고 상시상봉의 장으로 활용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뉴시스

제19호 태풍 ‘솔릭’ 북상... 한반도에 영향

전북도, 총력 대응 나서

송 지사, “피해 최소화 만전”

제19호 ‘솔릭’ 한반도로 접근, 23일 경 목포 남쪽 해안으로 상륙, 전북에는 22일 밤늦게 또는 23일 새벽부터 직·간접 영향권에 들 전망이다.
6년 만에 관통하는 이번 태풍의 크기는 중형급이지만 강도는 강한 태풍으로 우리나라에 초속 32m 이상의 강한 바람과 함께 많은 비가 내릴 것으로 예상된다. 2012년도 ‘볼라벤’의 이동경로와 비슷한 것으로 보여 농작물 및 해안지역 시설피해가 더욱 우려되는 상황이다.
이에 따라 20일 송지사는 간부회의를 통해 “제19호 태풍 ‘솔릭’이 전북지역에 큰 피해를 줄 것으로 예상되므로 태풍피해 최소화를 위한 대처에 전 행정력을 동원할 것”을 지시했다.
도는 24시간 상황관리를 통하여 기상정보와 태풍 상황을 예의주시하는 한편, 위험지역별 안전담당자를 현장

에 전진배치는 물론 저지대 차량이동 주차 등 안전관리에 철저를 기하도록 했다.
도 관련 실국은 시군과 협조하여 호우에 대비한 배수펌프 가동준비, 강풍에 대비한 선박 결속, 대피 통제, 해안가 방조제 해안도로 등 피해예방 활동에 강화하는 한편, 건설 중인 공사장 안전관리 및 수방대책 점검, 갯바위, 방파제 등 바닷가 낚시객 관광객 사전 출입통제 등 위험지역 사전통제 실시는 물론, 위급상황 발생 시 즉각 구조 활동이 진행될 수 있도록 준비 체계 가동에 만전을 기할 것을 긴급 지시했다.
아울러 “태풍에 따른 강풍과 호우가 예상됨에 따라 피해를 예방할 수 있도록 사전에 시설물 안전점검 및 저지대 차량 이동주차 등에 적극 협조해 줄 것”과 국민행동요령을 숙지하고 안전사고 예방에 적극 협조해 줄 것을 당부했다. /김진성 기자

2018 대한민국 대표축제 축! 전주매일 창간

문화체육관광부
Ministry of Culture, Sports and Tourism

www.firefly.or.kr

제22회 자연의 빛 생명의 빛 미래의 빛

무주 반딧불 축제

The 22nd Muju Firefly Festival

2018. 9.1 (토) ~ 9.9 (일)

무주군일원 남대천, 지남공원 반딧불전통공예문화촌 등

주최: 무주군 · 주관: (사)무주반딧불축제제전위원회 · 주소: 전북 무주군 무주읍 최북로 45 · 문의: 063)320-5004-17 · 후원: 문화체육관광부 · 환경부 · 전라북도 · 한국관광공사 · 한국문화관광연구원